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논문

호감동사 보문에 관한 연구

-동사 *like*와 *love*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전공

박향연

호감동사 보문에 관한 연구

-동사 *like*와 *love*를 중심으로-

A Study on *Liking-Verbs* Complement Constructions:
Centering on Verbs *like* and *love*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전공

박 향 연

호감동사 보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전공

박 향 연

박 향 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I. 서론	1
II. 동명사와 부정사의 구분	3
2.1 종래 학자들의 주장	3
2.1.1 동시성과 가능성	3
2.1.2 일반성과 특수성	4
2.2 문제점	6
III. 호감동사의 보문	9
3.1 구조적 선택규칙	9
3.2 의미적 선택규칙	11
IV. Duffley의 이론	14
4.1 보문의 형태	14
4.2 보문의 기능	17
4.3 본동사의 의미	20
V. Duffley 이론의 적용.....	21
5.1 호감동사 <i>like</i>	21
5.2 호감동사 <i>love</i>	27
5.3 <i>like</i> 와 <i>love</i> 의 용법	28
5.4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30
5.5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	32
VI.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A Study on *Liking-Verbs* Complement Constructions: Centering on Verbs *like* and *love*

Hyangyoun Park

Advisor: Prof. Namgeun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thesis is an attempt to describe and analyse complement constructions of *liking-verbs*. It is generally known that verbs *like* and *love* can have both *-ing* and *to-infinitive* complement constructions as same meaning. However, this study finds out the difference of using them as complement constructions.

The examination of usage carried out in this study has led to a refinement of the intuitions of grammarians concerning verbs of *liking*, in particular those of Bladon (1968). The purely syntactic criteria proposed to account for the choice of complement with *liking-verbs* have been shown to be inadequate, the relevant factors governing complement usage being rather semantic.

There are also some different features between *-ing* and *to-infinitive* constructions. According to Duffley (2000)'s study, it is proved that *-ing* is a direct objective construction of verbs while *to-infinitive* is a preposition phrase. A sentence with *-ing* complement construction can be changed into

not only passive voice but also pseudo-cleft sentence, but one with *to-infinitive* can't. *-ing* complement constructions can also be substituted for pronoun, *it*. However, *to-infinitive* can be substituted for not pronoun but *to*. These features proved that *-ing* complement is a noun phrase but *to-infinitive* isn't.

Consequently it is not surprising that verbs such as *like* and *love* are capable of evoking both an 'enjoyment' sense and a 'desire/inclination' sense. Nor is it surprising that it should be the verbs *like* and *love* which possess this potential. Verbs with *-ing* complement construction implicate the sense of 'enjoyment' whereas verbs with *to-infinitive* complement construction has the notion of 'desire', which shows that *like* and *love* can have different meaning by being followed by either *-ing* or *to-infinitive*.

I. 서론

영어 문법을 가르치면서, *like*를 동명사나 *to*부정사와 함께 해석할 때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사 중 하나로 가르쳐왔다. 심지어 Palmer (1988)의 영어 동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구문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아래에 (1)과 (2)와 같은 문장에서 보면 부정사와 동명사 구문이 동사 *like*와 함께 쓰일 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1) I like to finish work at 4:00.

(2) I like finishing work at 4:00.

(1)의 예문에서는 *like*의 보문으로 *to*부정사를 (2)의 예문에서는 동명사를 취하였다. 이처럼 *like*는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구조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다른 동사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 그러나 이 두 문장을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은 4시에 그 일을 끝내고자 하는 소망의 의미가 있고 (2)는 일반적으로 4시에 일을 끝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like*의 보문으로 *to*부정사와 동명사가 쓰일 때 의미적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차이점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연구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비정형동사인 동명사와 부정사의 사건의 동작주의 통제(control) 부분이다. 다음은 Wood (1956: 12)가 제시한 예문들이다.

(3) I don't like to send first offenders to prison.

(4) I don't like sending first offenders to prison.

(3)의 예문은 엄격히 주어 통제가 이루어진 문장으로 *to send*는 반드시 'I'라는 주어에 의해서만 통제 될 수 있고 (4)의 예문은 두 가지로 통제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4)의 예문에서 *sending*의 동작주는 *like*의 주어 'I'에 통제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제3자에 통제가 되는 문장으로 주어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다.

1) 두 개의 보문 형태를 모두 인정하는 *love*와 같은 동사 이외에, 동명사(*enjoy, relish, fancy, appreciate*)나 부정사(*want, wish, desire, long, yearn, hanker, pine, hunger, thirst*)와 함께 배타적으로 해석되는 동사들이 있다. 어떤 동사들은 왜 두 종류의 보문을 모두 허용하고 다른 것들은 한 종류의 보문만을 허용하는 지는 보문의 기능측면에서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이 두 구문에 대해서 어떤 문법 학자들은 동일한 것처럼 분석하였고 의미에서 아주 비슷한 구문들이라고 여겨왔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통제해석의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종래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호감동사의 특성을 통사·의미적인 측면에서 개괄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보문으로써 동명사와 부정사의 쓰임에 대한 종래 학자들의 연구를 개괄하였고, 제 3장에서는 호감동사²⁾를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제 4장은 Duffley (2000)의 이론에 바탕을 두어 보문의 형태, 보문의 기능, 본동사가 갖는 의미 등을 논의하겠다. 제 5장은 Duffley의 이론을 적용시켜서 호감동사 *like*와 *love*의 통사적인 면과 의미적인 면을 다루었으며, 나아가 호감동사가 동명사 구문을 취할 때와 부정사 구문을 취할 때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나누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2) *Liking-verbs*를 본 고에서는 호감동사로 번역하였다. 호감동사는 ‘like’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 즉 크게 욕구를 나타내는 *want, wish, desire, long, yearn, hanker, pine, hunger, thirst* 등과 같은 동사와 즐거움을 의미하는 *enjoy, appreciate, relish, fancy* 등과 같은 동사가 이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like*와 *love*에 중점을 두었다.

II. 동명사와 부정사의 구분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동시성과 가능성이라는 “시제상의 접근법(temporal approach)”의 관점에서 *-ing*는 흔히 동사의 사건과 본동사에 의해 표현된 것 사이의 동시성이나 일시적인 중복을 이야기하기 위해 주장되거나 시간상 진행이나 확장된 사건의 지속을 나타내고 부정사는 미래와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구문으로 다루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관계성의 측면으로 이 두 구문을 구분 짓기도 한다.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는 동명사 구문을 사용하며 부정사는 특별한 상황을 설명할 때 이용하는 구문이라고 본다.

2.1 종래 학자들의 연구

2.1.1 동시성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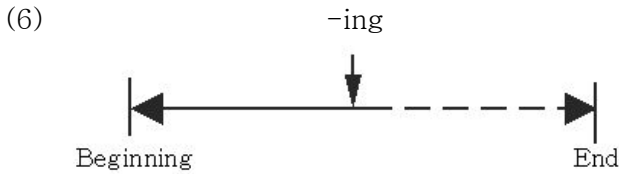
Quirk, et. al. (1985: 1191)은 동명사는 일반적으로 동시성에, 부정사는 잠재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에 쓰인다고 한다.

- (5) a. I heard the door slamming all night long.
- b. I heard the door slam just after midnight.

(5a)는 밤새도록 문이 쿵쿵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말로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그 동작을 들었던 동작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 볼 수 있고, (5b)는 자정이 넘으면 문소리가 쿵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앞으로 문소리가 날 것을 뜻한다.

이처럼 부정사를 미래의 사건에 대해 표현하는데 사용된다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였는데 그 중 Stowell (1982: 562)은 부정사가 미래시제 기능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사는 미래와의 관계를 포함시킨다고 보았다.

Larrea (1987: 8)는 본동사가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내부 그림에 의하여 *-ing*를 정의한다. 그리고 *-ing*는 자신이 성취한 부분과 성취되지 않은 부분 사이에 나누어진 사건의 이미지로써 특징지은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 (6)의 그림을 보자.



(6)은 어떠한 사건이 시작되어 성취된 사건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성취되지 않은 사건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ing*구문으로 서술되는 사건은 실선과 점선의 사건 간의 한 시점만을 언급하여 서술한다는 것이다. Larreya에 따르면, 이것은 *-ing*가 왜 동시성의 인상을 만들어 내는지를 설명한다. *-ing* 사건이 또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 놓였을 때 그 시점에서 진행으로써 상징되기 때문에, 생성된 결과는 시제의 일치나 중복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ing*와 부정사의 구문을 동사의 보문 구조로 사용할 경우 *-ing*를 본동사와의 시제 일치나 중복과 같은 동시성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부정사는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는 가능성의 의미로 보았다.

2.1.2 일반성과 특수성

동명사와 부정사를 다룰 때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관계성에 비추어 보면 Sweet (1903: 120)는 동명사가 일반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다음 (7)의 예문을 살펴보자.

(7) Seeing is believing.

위의 예문에서 *seeing*과 *believing*이라는 동작은 그 동작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이 행한 동작이 아닌 그 동작을 행하는 동작주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로써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Jespersen (1940: 193) 역시 Sweet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는 일반적인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부정사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라고 주장하였다.

(8) a. I hate lying.

- b. I hate to lie.
- (9) a. I don't like smoking.
- b. I would like to smoke now.

(8a)의 예문은 *I hate that people lie*란 의미로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표현이고 (8b)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특수한 경우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9a)의 예문은 담배 피는 습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자신의 견해를 뜻하지만 (9b)의 예문은 현재 담배를 피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명사 보문은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부정사 보문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다.

Wood (1956: 11)는 동명사가 어떤 행위자나 사건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사실과 관계없이 그 행동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Lying is wrong*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국한시켜 말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든 인물이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행동이나 습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like*가 동명사를 취할 때 즐거움의 의미를 내포하고 *(do) not like*가 동명사를 취할 경우에는 혐오를 제공하지만 부정사와 함께 하면 오히려 바램, 선호 또는 선택을 나타내고 부정문에서는 꺼림을 나타낸다고 제안한다.

- (10) a. I don't like tidying up his study.
- b. I don't like to tidy up his study.

(10a)의 예시는 *I detest tidying up his study*를 부드럽게 말한 것으로써 그의 서재를 청소하기 싫다고 볼 수 있으나 (10b)의 예시는 나에게 불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나는 정말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는 수도 있지만 그가 불쾌하게 되거나 그의 찬성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청소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ornby (1975: 42)도 동사가 동명사를 취하면 일반적인 의미를 뜻하고 부정사를 취하면 특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나 문제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would*나 *should*와 함께 *to*부정사가 사용된다고 한다.

- (11) a. I don't like going to the theatre alone.
- b. I'd like to go to the theatre if you will go with me.

문장 (11a)는 ‘혼자 극장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혼자서 극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1b)는 ‘만약 네가 나와 같이 간다면 나는 극장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뜻으로 특별한 경우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Curme (1931: 149)도 역시 동명사는 일반적인 사실의 서술에 쓰이고, 부정사는 특별하고 개별적인 행동에 쓰인다고 주장한다.

- (12) a. Talking mends no hole.
- b. To delay is dangerous.

(12a)는 실천에 옮겨야지 말만 해 가지고는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12b)는 문맥상 어떤 상황 하에서 네가 일을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특별한 경우를 뜻한다.

2.2 문제점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점에 대한 종래학자들의 주장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로 동명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동시성과 같은 시제 중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부정사를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13), (14)의 문장을 보자.

- (13) I remember turning off the lights.
- (14) I am considering changing jobs.

(13)의 문장에서 동명사의 사건은 그것을 회상하는 현재 순간보다 명백히 앞서서 것으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14)의 문장에서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미래이다. 이와 같이 먼저 제시했던 몇몇의 예들에서만 시간의 동일함을 함축하고 위에서 제시한 예들은 사실(13)이나 가능성(14)을 언급하였다. Wierzbicka (1988: 66, 164)는 *-ing*구문을 ‘시간의 동시성’의 의미나 (13)에서 언급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구문, 그리고 (14)에서와 같이 ‘가능성’을 뜻하는 구문으로 구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ing*형태를 세 개의 각기 다른 동음이의어로 나누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주장이 되었다. 반면에 부정사를 미래나 현실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15)와 (16)과 같은 문장에서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다.

(15) I managed to get the door open.

(16) I remembered to lock to door.

여기에서 부정사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위의 (13)~(16)과 같은 사용에 비추어 시제나 일시성이 라는 점에서 *-ing*형태와 *to*부정사의 구분을 정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관계성에 관해서 동명사가 일반성을 나타내고 *to*부정사는 개별성·특수성을 의미한다는 주장 역시 비슷한 문제에 빠진다. 정말로, 똑같은 두 형태 간에 정반대의 특징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Freed (1979: 152)는 본 동사의 보문으로써 *-ing*형태는 단순한 사건의 명확하지 않은 기간을 언급한다고 제안하는 반면에, 부정사는 일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Conrad (1982: 92, 118)의 입장은 이와 관련은 있지만 약간 다르다. Conrad는 동명사를 명사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부정사는 명사구와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부정사에 대한 그의 모순된 입장은 부정사가 명사구와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다는 특징에 대해서 불분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양의성이 제시한 것과 같이, 정말로 아래 (17), (18)에서 설명된 것처럼 부정사는 명사구와 관계가 있는 것과 명사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써 두 개의 기능을 모두 갖는다.

(17) To have the Greek paper is not the great help that at first flush it seemed.

(Brown University Corpus P07 0640)

(18) And it was the House he loved. To be the presiding officer of it was the end of his desire and ambition.

(Brown University Corpus B03 0280)

그러나 독점적으로 명사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동명사 역시 명사구와 관계가 있는 것(19)과 관계가 없는 것(20)으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다.

(19) Giving up the violin opened a whole new career for Ilona Schmidl-Seeberg, a tiny Hungarian who Fritz Keisler had predicted would have a promising career on the concert stage.

(Brown University Corpus A30 0360)

(20) I took a deep breath. Being angry wouldn't help.

(B. Conrad, *Referring and Non-Referring Phrases*, Akademisk Verlag, Copenhagen, p. 116)

일반성이나 특수성에 관한 구분으로 돌아가서 여러 문장 속에서 사용된 예시를 살펴보면, 동명사와 부정사 둘 다 관계성의 이러한 두 가지 종류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부정사만이 언급한다고 주장하였던 특정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동명사와 부정사 둘 다 언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Grosse quietly got a broom and started to sweep up the sugar,
Vince watched him.

(Brown University Corpus L03 0650)

(22) She stopped reading and looked up at me.

또한 동명사만이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으나 동명사와 부정사는 둘 다 일반적인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23) To understand American politics ... is to know people ...

(Brown University Corpus C11 1670)

(24) Writing a book is not unlike building a house or planning a battle or painting a picture.

(G. Scheurweghs, *Present-day English Syntax*, London, p. 205)

따라서 동명사와 부정사의 구분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대조나 동시성과 장래의 가망성의 대조에서 정의될 수 없다.

Ⅲ. 호감동사의 보문

호감동사의 보문에 관해서는, 통사적인 특성과 의미적인 특성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호감동사를 분류해놓은 Bladon (1968: 203-14)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겠다. 이 연구의 목표는 *like, love, hate, prefer, dislike* 동사의 목적어 구문으로 사용된 *to*부정사와 *-ing*구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Bladon은 이 연구에서 호감동사를 분류하는데 두 가지의 선택기준을 제시하였다. 문장 구조와 관련한 ‘구조적 선택규칙’과 조건부 상황에서 *like*앞에 *would*의 선택을 이끄는 것처럼 사실과 조건부 사이의 구별을 이끌어내는 ‘의미적 선택규칙’이 있다. 다음 (25)문장이 의미적 선택규칙의 예이다.

- (25) a. I like interviewing men of such renown.
b. I think I'd like interviewing a man of such renown.

(25a)의 문장은 ‘그렇게 명성 있는 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의 의미를 가리키고, (25b)는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조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호감동사의 보문을 “사실”이나 “조건부”의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짓는 ‘의미적 선택규칙’이 있다.

3.1 구조적 선택규칙

‘의미적 선택규칙’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조적 선택 규칙’을 보자. 다음은 *like*와 관련된 구조적 제약들과 관련된 예시들이다.

- (26) a. *He **can like to learn** languages.
b. *He **could like to learn** languages.
c. *He **must like to learn** languages.
d. *He **will like to learn** languages.

- (27) *He **has liked to learn** languages.

- (28) a. *He **is liking to learn** languages.
b. *He **is liking learning** languages.

(26)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ike + to*부정사는 조동사와 함께 쓰일 수 없고 (27)과 (28a)의 예문을 보면, *like + to*부정사 구문은 *have + -en* 이나 *be + -ing* 와도 양립할 수 없다. *like + -ing* 구문 역시 동명사 구문과도 양립할 수 없음을 (28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6a-d)의 문장에서 보면 법 조동사와 *like + to*부정사는 서로 공기하지 못하지만 다음 (29)예문에서 보면 *may*와 *might*는 가능한 문장이다. 이처럼 구조적 선택 규칙이 ad hoc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9) 'He's a liar then. He **may like to** blame it on them, but it's little Con Melody cared what they said.'

(E. O'Neill, *A Touch of the Poet in Complete play*, II, New York, p. 14.)

이 뿐만 아니라, 다음 (30)-(32)문장의 경우도 위의 구조적 선택규칙에 비추어 보면 비문법적인 구조들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구문들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30) a. Someone **can like to learn** languages and yet not like to travel.

b. Perhaps you **could like to start** your own recycling group to benefit a local charity or school.

(British National Corpus HTA 37)

c. He **must really like to learn** languages - he is always studying a new one whenever I meet him.

d. The army list has provision for a number of characters without specifying who they are or where they come from within Ulthuan - it is assumed that players **will like to create** their own names and background histories for their characters.

(British National Corpus CMI 1885)

(31) Although the instruction books that come with new machines recommend certain ways of setting such machines up, I **have always liked to experiment** across the range of possible

settings.
 (British National Corpus G30 740)

(32) I'm **liking being** adulated.

분명 Bladon이 제시한 구조적 선택규칙에 따르면 조동사와 함께 쓰인 (30), 완료형과 함께 쓰인 (31), 진행형과 함께 쓰인 (32)의 예시들은 비문법적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사용이 가능한 구문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선택규칙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의미적 선택규칙

다음은 호감동사를 구분 짓는 의미적 선택기준을 살펴보겠다. Bladon (1968: 203-14)에 의하면 의미적 선택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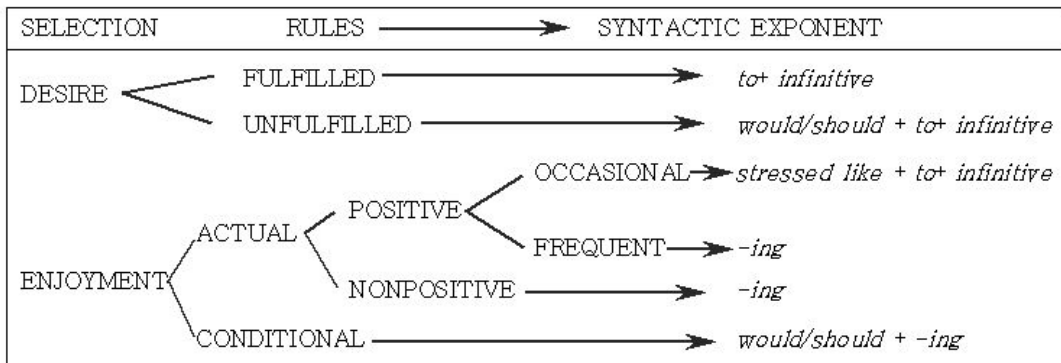


표 1) 의미적 선택기준

만약 *like*를 ‘want’, ‘desire’, ‘intend’ 또는 ‘go out of one's way’와 같이 ‘욕구(desire)’와 관련된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면 *to*부정사와 함께 독점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3) He **likes to go** home by car.

(34) He **would like to go** home by car.

욕구의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욕구는 (33)의 예문에서는 채워졌지만

(34)의 예문과 같이 채워지지 못한 경우에는 *to*부정사 구문이 *would/should*와 함께 쓰인다. ‘즐거움(enjoyment)’의 개념은 사실(35)이든지 조건부(36)이든지 일반적으로 *-ing*구문과 함께 쓰인다.

(35) He **likes going** home by car.

(36) I think I'd **like interviewing** a man of such renown.

(35)의 예문은 차로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고 (36)의 예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하에 그 동작이 전개되어 *would*나 *should*가 *-ing* 구문과 함께 쓰이게 된다. 이러한 ‘욕구(desire)’를 나타낼 때는 *to*부정사를 사용하고 ‘즐거움(enjoyment)’을 나타낼 때는 *-ing*로 나타내는 패턴의 유일한 예외는 다음 (37)의 예문에서처럼 *to*부정사를 동반한 *like*가 강세를 받는 어조인 경우이다. Bladon은 (37)의 예문과 같이 *to*부정사 구문이라 할지라도 강세를 받은 경우에는 ‘욕구(desire)’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즐거움(enjoyment)’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37) He **likes to go** home by car (but his parents can't often manage to fetch him).

이처럼 Bladon이 제안한 구조적 제약에는 주요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욕구(desire)’와 ‘즐거움(enjoyment)’의 의미적 범주로 나누어진 동사 *like*가 두 종류의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 선택규칙들이 아주 흥미롭다. 이와 같이 호감동사의 보문에 관해 분류할 때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하기 보다는 의미적인 특징을 우선하여 분류하는 것이 더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욕구(desire)’와 *to*부정사와 상호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움(enjoyment)’과 *-ing*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37)번과 같은 문장의 상황에서 Bladon이 만들어낸 예외는 이러한 주장에 왜 *-ing* 형태들은 즐거움이 아닌 다소 만족스러운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분석되지 못하는지, 이러한 고려사항들 외에 왜 *to*부정사 구문은 ‘욕구(desire)’를 표현하고 *-ing*구문은 ‘즐거움(enjoyment)’의 개념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것이 보문 자체의 의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호감동사의 사용과 비슷한 의미의 다른 동사들의 사용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미의 기원과 의미영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용법·특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Bladon처럼 Kilby (1984: 155-6)도 *like* + *-ing*는 ‘즐거움(enjoyment)’을 언급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Kilby는 동명사가 ‘즐거움(enjoymen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불러일으킨다고 본 반면에 부정사는 ‘가망성, 또는 보편화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다음을 보자.

(38) I **like to eat** three pounds of raw meat before training session.

(39) I **like eating** three pounds of raw meat before training session.

(38)의 문장은 화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날고기(raw meat)가 자기에게 좋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ing*구문으로 쓰인 (39)의 예문은 화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자신이 그 경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Kilby는 *to*부정사를 보문으로 한 *like*에 의해 표현된 의미의 정확한 특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구문의 두 성분간의 관계가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Dirven (1989: 113-39)은 *like*가 동명사나 *to*부정사를 보문으로 쓸 경우 그 두 구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시 하였다. (40)의 예문에서와 같이 *to*부정사 구문의 경우, *like*는 ‘want’의 의미를 지니고, 부정사는 행동의 잠재적이고 단순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았다.

(40) I **would like to see** you wearing a Roman toga and reciting Shakespeare.

Dirven은 (41)의 예문에서 제시된 동명사 구문에서는, *like*는 ‘enjoy’로써 해석되고 *-ing*를 사실이나 보편적인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41) I have always loved acting.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Dirven이 발화의 의미에 조동사 *would*의 공헌을 잊어버리고 *would like*과 *like*를 비교했다는 것이다. 만약 동명사를 보문으로 한 *would like*의 사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이나 보편적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ing*의 불완전했던 설명이 명백해질 것이다.

IV. Duffley의 이론

Duffley (2000: 221-48)는 *-ing*와 부정사 구문을 보문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즉, 보문형태 자체의 의미, 문장 내에서 보문의 기능, 본동사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4.1 보문의 형태

먼저 *-ing*보문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면, 동명사로 쓰인 *-ing*구문은 진행형 구문에서 *-ing* 사용의 특징인 미완료의 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ing*가 동명사로 사용될 때 *-ing*는 어떤 사건 내에 포함된 모든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사건의 전체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전치사 *after*와 *-ing*의 동명사적 사용의 양립성을 설명한다.

(42) a. After eating supper, he went out for a walk.

여기서 *-ing*는 (42c)에서 말하는 진행형 구문이 아니라 (42b)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먹는 것의 완전한 실연을 불러일으키는 단순 과거 시제와 일치한다.

(42) b. After he ate supper, he went out for a walk.

c. *After he was eating supper, he went out for a walk.

진행형 구문에서는 *-ing*의 사건이 본동사 사건의 시작과 마지막 제한점 사이에 위치한 어떠한 시점에서 동작주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명사의 사용에서는 사건의 완전한 본성을 불러일으킨다. 동명사 *-ing*의 의미를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영어에서 *-ing*보문 구조의 의미적 성질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장애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to*부정사에 관해서 살펴보면, *to*부정사의 언어학상 의미는 원형부정사와 전치사 *to*라는 두 개의 성분을 포함한다. 원형부정사를 먼저 고려해보자.

(43) a. I saw your cat **crossing** the street.

b. I saw your cat **cross** the street.

(43a)는 목적보어로 분사 *-ing*를 쓴 경우이고 (43b)는 원형부정사를 보문으로 취한 경우이다. 원형부정사와 분사 *-ing*를 비교해 보면, 부정사가 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형부정사는 또한 (44)에서처럼 어떤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4) He did **know** the answer.

이것은 원형부정사를 동사의 단순형태와 유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 구문이 단순 형태의 추상적인 해석으로 분석될 것이다. (43b)와 같이, 원형부정사는 본동사의 사건이 행해지는 사건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현실화로써, 또는 어떤 상태의 사건 내에서 완전한 존재로써 사건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부정사와 동사의 단순 형태의 차이점은 부정사는 시제나 인칭으로 굴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사건을 나타낸다. 이것은 실제로 동사의 정형동사의 형태와 비정형동사의 형태의 기본적인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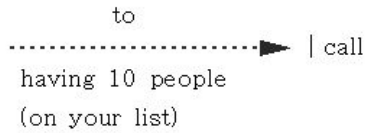
*To*부정사 구조의 첫 번째 성분인 *to*에 관해서 살펴보면, 부정사를 소개하는 *to*는 전치사일 뿐 의미가 없으며 부정사를 만드는 요소가 아니다. 만약 *to*가 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면 부정사의 모든 사용에서 빠짐없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to*가 들어가지 않은 부정사는 상당히 많다. 바로 조동사 *do*, 법조동사, *make, have, let, see, hear, feel* 등의 뒤에서는 *to* + 부정사가 아닌 동사의 부정사 형태만을 사용한다. 이것은 과거 용법에서 역사적 흔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예로 동사 *make*의 경우에 *to* + 부정사 구문은 언어의 초기 단계에는 일반적이었으나 원형 부정사를 이용한 보문의 제약으로 나중에 발전 되었다는 Visser (1973: 2261)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원형 부정사와 *to*부정사가 (45a)와 (45b)에서처럼 의미면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45) a. I had ten people **call** last night.

b. I had ten people **to call** last night.

이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5a)의 예문은 부정사의 사건이 본동사의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to*가 함께 쓰인 (45b)는 부정사의 사건이 본동사의 사건 다음 순서로 현실화된 것이라 본다. 이를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6)



위의 도식에서 사건의 전개를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사건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 (47)의 예문을 보자.

(47) I managed to call ten people last night.

(47)은 사건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라 보았고 이를 도식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48)



(47)은 부정사가 미래 시제 기능을 포함하여 부정사 보문은 미래의 가능성을 뜻한다고 보았던 Stowell (1982)의 주장대로 볼 경우 문제가 되었던 문장이다. 그러나 방향의 개념을 표현하는 전치사로써 *to*를 볼 경우 설명이 되지 않았던 (47)과 같은 상황을 해명할 수 있다.

보문형태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면은 인칭에 관한 측면이다. 비록 부정사나 *-ing*가 인칭으로 인해 굴절되지 않고 이 두 구문들이 주격과 함께 쓰이지는 못하지만, 부정사와 *-ing*구문은 둘 다 주어 역할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명사로써는 불가능한 구문인 형용사의 보문절을 갖는 구문 규칙도 가능하다.

- (49) a. Appearing tired is not quite the same thing as being tired.
b. To appear tired is not quite the same thing as to be tired.
c. *Appearance tired is not quite the same thing as being tired.

(49a)와 (49b)의 문장에서 형용사 *tired*는 부정사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난 일반적인 주어에 적용된다. 의미의 이러한 성분은 명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49c)

에서는 불가능하다. *-ing*와 *to*부정사의 동사 형태에서 발견된 함축적인 성분은 일반화된 사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주어로써 동사가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성을 지니지만 주어 1, 2, 3인칭이라는 인칭 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칭이나 그 특징 면에서 다소 막연한 상태에 놓이지만, 동명사 구문과 부정사 구문이 주어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2 보문의 기능

부정사나 *-ing*가 따르는 호감동사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Duffley (2000: 221-48)는 두 번째 요인으로 보문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보문의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면 *-ing* 구문은 본동사의 직접 목적어 구문으로 사용되었고 *to*부정사 구문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그 증거는 다음의 예시들에서 확인해 보겠다. 먼저 다음 (50)의 예문에서 *playing tennis on the new courts*라는 동작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써 이를 보문으로 취한 *enjoyed*는 수동태(*was enjoyed*)로 변화가 가능하다. 즉, 의미적으로 ‘that which is be [VERB]ed’의 개념에 일치한다.

(50) Everyone enjoyed playing tennis on the new courts.

보문으로 쓰인 *playing tennis on the new courts* 구문이 목적어 구문이라는 증거는 (51)의 예문에서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것과 (52)의 예문에서처럼 의사 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1) Playing tennis on the new courts was enjoyed by everyone.

(52) What everyone enjoyed was playing tennis on the new courts.

이 뿐만 아니라, 직접목적어인 *-ing* 구문을 대신해 쓰는 대용어로 대명사 *it*을 사용할 수 있음을 다음 (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If they enjoyed playing tennis on those courts last time, I imagine they will enjoy it this time as well.

동명사 구문이 수동태와 의사 분열문이 가능하고 또 동명사의 대용어로 대명

사가 가능하다는 모든 증거들은 동명사가 호감동사의 직접목적어로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to*부정사 구문은 동명사와 다르다. Mair (1990: 105)는 ‘비록 *attempt* 같은 동사의 부정사 보문을 목적어로 여기는 것은 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동사가 수동태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다음에 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ing*를 포함한 구문과의 기본적인 비교를 해보면 동사 *like*에 적용되는 말이다.

- (54) a. The more tired they were, the less **they liked getting up early.**
 b. The more tired they were, the less **getting up early was liked.**
- (55) a. The more tired they were, the less **they liked to get up early.**
 b. *The more tired they were, the less **to get up early was liked.**

(54)의 문장을 보면 *-ing* 구문은 수동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to* 부정사 구문은 (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동태 문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To*부정사가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to*부정사 구문을 대명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 (56) *On Saturday Pam likes to play with her friends and Mary also likes it.

다음 (57)에서 보면, 부정사를 뒤에 다시 언급하는 대응형태는 대명사 *it*이 아닌 *to*이다.

- (57) On Saturday Pam likes to play with her friends and Mary also likes to.

이러한 이유들로 Duffley (2000: 231)는 *to*부정사 구문은 본동사에 관해서 목적어구문이 아닌 목표지정어(goal-specifier)로써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로서 다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전치사 *to*는 *like*의 주어가 부정사 사건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삼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like*와 부정사의 관계를 정의한다. 전치사의 목표지정어는 아래 예시에서 설명될 수 있듯이, 직접목적어에 대한 의미 면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다.

- (58) a. He craved peace and quiet.
b. He craved for peace and quiet.

본질적으로 위의 두 문장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이유는 (58a)에서 *crave*는 타동사로써 *peace and quiet*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고 (58b)에서 *crave*는 자동사로써 주어인 'he'가 목표로 하는 것을 전치사 *for*를 수반한 전치사구로 취한 구문이다. 이처럼 (58a)와 (58b)의 문장은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나 화용론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try*라는 동사로 살펴보면, *try*의 직접목적어 구문인 동명사의 사건이 수동태로 나타날 수 있다.

- (59) He **tried getting** elected to the student council.

(59)는 *try*의 주어가 어떤 이면의 목표를 성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를 보기 위해 이 사건을 수행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에 목표지정어인 *to*부정사는 수단의 즐거움이 성취되는데 목적을 둔 목표 자체에 일치된다.

- (60) He **tried to get** elected to the student council.

이것은 동명사 구문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전치사구인 '*for* + 명사'와 비슷한 구문이고, *try* 다음에 오는 목표지정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61) He **tried for** a position on the student council.

*for*가 이끄는 전치사구와 *to*부정사의 의미적 일치는 *to*부정사 구문이 본동사의 목적어 구문이 아닌, 주어의 목표를 실현하고자하는 목표지정어으로써 쓰인 전치사구라는 분석을 지지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된다.

4.3 본동사의 의미

Bladon (1968)의 ‘욕구(desire)’와 ‘즐거움(enjoyment)’의 구분을 기초로 하여, 대부분의 동사를 이 두 범주 중 하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Want, wish, desire, long, yearn, hanker, pine, hunger, thirst*는 의미면에서 모두 ‘욕구(desire)’에 해당하는 동사들로 욕구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Want, wish, desire*는 욕구의 개념에 중간개념보다 조금 약한 개념을 표시한다. *Long, yearn, hanker, pine, hunger, thirst*는 욕구의 강한 개념을 지닌다. 후자에 속하는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나 전치사 *for*나 *after*로 소개되는 전치사구를 수반할 수 있다.

‘즐거움(enjoyment)’의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어떤 것의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enjoy*, 평가로부터 이끌어 나오는 감사의 감정과 어떠한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appreciate*, 즐거움이나 기쁨 또는 종종 음식, 마실 것에서나 어떤 생각을 축하하면서 느끼는 굉장한 감정을 언급하는 *relish*라는 동사를 쉽게 구분해 낼 수 있다. *Fancy*는 다소 *relish*와 유사한 것 같지만 어떠한 것을 상상해내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하는 개념을 불러일으킨다. ‘욕구(desire)’나 ‘즐거움(enjoyment)’이라는 개념으로 특징짓기 가장 어려운 동사들은 *like*와 *love*이다.

(62) She likes/loves tennis.

이 두 동사 *like*와 *love*는 ‘즐거움(enjoyment)’을 언급할 수 있고 ‘어떤 것에 끌리는, 매혹당하는 감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63) I like/love Myriam.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감동사 *love*는 호감동사 *like*보다는 더 강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둘 다 끌리는 감정이나 현재 자신이 갖고자 하는 물건으로부터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동사들이다.

V. Duffley 이론의 적용

5.1 호감동사 *like*

동사 *like*를 포함하는 자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에서 *to*부정사 구문을 동명사 구문보다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Lancaster-Oslo/Bergen Corpus에서는 동명사의 예가 10문장, Brown University Corpus에서는 8문장뿐이지만 *to*부정사의 예는 British Corpus에서는 123문장, American Corpus에서는 115문장이다. Lancaster-Oslo/Bergen Corpus와 British Corpus라는 두 언어자료에서 대략 절반정도가 *to*부정사와 *would*, *should*와 함께 쓰이는 구문으로 구성되어있다.

(64) The mother of a difficult child can do a great deal to help her own child and often, by sharing her experiences, she can help other mothers with the same problem. Since little is known about autism, and almost nothing has been written for the layman, we'd **like to share** one experienced mother's comments.
(Brown University Corpus B10 0890)

(65) However, I **should not like to convey** the impression that no authentic news is transmitted from Italy. Many Rome reports are based on the most solid facts - as witness the affair of the twenty-six Yemeni concubines.
(Lancaster-Oslo/Bergen Corpus G54 81)

*Would like*는 욕망의 약해진 표현으로써 사용되면서 위의 예시들에서 가장 근사한 의미로 바뀌 쓸 수 있는 동사는 *wish*이다. 조건절 문맥 외에, *like + to*부정사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다음의 예들은 'try to if one can'이라는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66) We always **like to keep** the ball as much as possible against Denver because they have such an explosive attack.
(Brown University Corpus A12 1450)

(67) I **like to get** as much as possible of this planting done in November while the temperature of the soil is still fairly high, for this gives the roots a reasonable chance to get themselves established.

(Lancaster-Oslo/Bergen Corpus E08 69)

둘째로 *like*가 *to*부정사를 취할 경우 ‘be in the habit of’의 의미를 지닌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예시에서 확인해보자.

(68) During late childhood boys **like to tease**, jostle, and talk smart to girls;

(Brown University Corpus J47 0740)

(69) There's nothing he **likes** more than **to frighten** the Party. That's the first step. Then he **likes to come** along and kiss it better.

(Lancaster-Oslo/Bergen Corpus K03 40)

(70) Do you **like to sew**? Does making your own clothes, or even doll clothes, interest you?

(Brown University Corpus F06 0490)

위의 (68)-(69) 예문에서 *like*는 습관처럼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70)의 예문은 시간을 손에 넣고자 하는, 즉 부정사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누군가 얻어낸 기회가 무엇이든지 붙잡고자하는 생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always be ready and willing to’라는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71) She is a beautiful filly and **likes to trot**.

(Brown University Corpus E09 0910)

(72) In the bedrooms the children were preparing to sleep. He **liked to watch** them, he wanted children now,

(Lancaster-Oslo/Bergen Corpus K16 191)

넷째는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have an inclination to’, ‘be inclined to’의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73) Find out what you **like to do** most and really give it a whirl.
(Brown University Corpus F06 0490)

(74) ‘Ballad of a Soldier’ was a simple story of a pure young boy and a pretty girl falling in love. It was something with which audiences **liked to identify** themselves.
(Lancaster-Oslo/Bergen Corpus G49 135)

특별한 생각(pet idea), 즉 성격, 세계관, 상황에 대한 우수한 통찰력에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호감동사 *like*의 보문으로 동사 *think*와 *imagine*이 뒤따르는 특수형(sub-type)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예문은 다음 (75)-(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75) Every grown man (except a few who were always suspected of being shy on virility) knew at least the fundamentals of baseball, just as every male American in this era **liked to imagine** (or pretend) that he could fight with his fists.
(Brown University Corpus F38 1630)

(76) A dutiful teacher puts his back into his work and is apt to be hard and unbending. The diligent teacher puts his heart into his work because he loves it, and this is how I **like to think** of teachers today doing their work.
(Lancaster-Oslo/Bergen Corpus B27 119)

다음 (77), (78)의 예문들은 호감동사 *like*가 ‘want, wish’의 의미로써 쓰인 경우이다.

(77) First of all, no unit **likes to have** a new CO brought in from outside, especially when he's an armchair trooper.

(Brown University Corpus F22 0270)

(78) “Divorces cost money”

‘Well, he had a bit, hadn't he? Didn't have to work, seemed comfortable enough.’

‘Yes, but he didn't **like to spend** it.’

(Lancaster-Oslo/Bergen Corpus L14 91)

American Corpus에서 이 의미는 항상 일반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지만 British Corpus에서는 부정사 사건이 구체적인 상황에 관련되어 쓰인 예문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79) ‘Did you find it?’

He shook his head again. ‘Some one gave it me.’ Martin **had not liked to go** on questioning him, suspecting that his would be an intrusion on some private memory which he wanted to respect.

(Lancaster-Oslo/Bergen Corpus K06 172)

(80) She hesitated. ‘I - I **don't** really **like to tell** you,’ she said reluctantly.

(Lancaster-Oslo/Bergen Corpus L22 188)

이 용법은 *hardly*와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는 부정문이나 비단정적인 문맥 내에서만 발견된다. 미국 영어에서 누구나 그러한 예시 속에서 동사 *want*를 사용할 것이다. 다음의 예시들은 ‘tend to’라는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81) A man has 32 souls, one for each part of the body. Those souls **like to wander** off, and must be called back.

(Brown University Corpus F24 1660)

(82) [No instances found in Lancaster-Oslo/Bergen Corpus.]

다음 (83), (84)는 *like*가 ‘prefer, choose to’의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83) Though Americans usually lived in groups segregated by national origin or religious belief, they **like to work** and shop in the noise and vitality of downtown. Only a radical change in the nature of the population in the central city would be likely to destroy this preference...

(Brown University Corpus J60 1600)

(84) Similarly, since most men **like to be** seen to do the paying, it is a tactful precaution if, at the start of the evening out, she gives him the theatre tickets 'to take care of' ...

(Lancaster-Oslo/Bergen Corpus F08 72)

통상적으로, *like + to*는 평소의 선호도를 자아낸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는 평소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영향을 준 선택을 언급한 경우이다.

(85) After they left, some of the people moved around, to find more comfortable places to sit. There were not many chairs, so that some preferred to sit on the edge of the porch, resting their feet on the ground, and others **liked to sit** where they could lean back against the wall.

(Brown University Corpus K26 1461)

이 예에서 작성자는 *prefer*의 반복을 피하고자 했다는 인상을 준다. 마지막으로 부정사에 의해 표현된 사건의 발생을 향한 아주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습성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두 가지의 예문이 있다. 다음 (87)의 예문에서는 *like + to* 부정사를 'be happy to'로 바꿔 쓸 수 있고 (86)의 예문에서는 'be fond of'로 바꿔 쓸 수 있다. 후자의 예문에서는 *like + to think*나 *like + to imagine* 구문의 느낌인 특별한 생각(*pet idea*)과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안에서 이러한 문장은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소리 중 하나를 보여준다.

(86) She skipped a piece of water at him and laughed, a funny, hoarse laugh he **liked to hear**.

(Brown University Corpus P16 1240)

- (87) A fascinating letter has just reached this desk from a correspondent who **likes to receive** so-called junk mail.

(Brown University Corpus B07 1655)

동명사 구문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용된 동사들이 동사 *enjoy*와 대체될 수 있다. Brown University Corpus에서 8문장의 예시 중 7문장이, Lancaster-Oslo/Bergen Corpus에서는 10문장의 예시 중 7문장이 대체될 수 있었다.

- (88) A fairly common experience for us in the wife who finds her husband staying out more and more. He may be interested in another woman, or just **like being** out with the boys,

(Brown University corpus C17 1100)

- (89) Even more simply, test your own reactions to different situations. There are some which bring on an almost immediate feeling of tiredness - such as when your wife mentions the washing-up - while others, if they refer to something you **like doing**, bring a veritable surge of energy.

(Lancaster-Oslo/Bergen Corpus D06 83)

호감동사 *like*가 부정어와 함께 쓰인 (90), (91)과 같은 문장에서는 *like*를 *enjoy* 보다는 *dislike*나 *detest*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90) I never **liked going** straight into an examination with patients - it relaxes them, I've always thought, to chat first.

(Brown University Corpus P19 0760)

- (91) 'Now just a minute, young lady!' His face reddened, darkening the welts and bruises, and emphasizing the purple bulge under the right eye. 'I **don't like being** called a spy.'

(Lancaster-Oslo/Bergen Corpus N07 134)

그러나 다음의 (92), (93)의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가 함께 쓰였어도

dislike 나 *detest*가 아닌 긍정문에서처럼 *enjoy*와 바꿔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

(92) Enough of his life was spent there on the field for him never to **like watching** the game as a spectator in the crowd. He always feels lonely.

(Brown University Corpus B14 0410)

(93) There was blue trout next, then a young chicken that had been cooked in wine and herbs, finally a platter of cheese and fruit. Rob took a deep breath. 'I think that was the best meal I've ever eaten. I think of beans of toast in Birmingham and shudder. Or spaghetti. I **won't like going** to Italy!'

(Lancaster-Oslo/Bergen Corpus P10 23)

5.2 호감동사 *love*

동사 *like*와 유사하게 *love*도 동명사보다는 *to*부정사와 더 자주 사용된다. Brown University Corpus에서 11문장의 예시 중 10문장이, Lancaster-Oslo/Bergen Corpus에서 7문장의 예시 중 6문장이 *to*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구문으로 제시되었다. *Would* + *love* 구문은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구문만큼이나 자주 사용된다. Brown University Corpus에서 10문장 중 3문장의 예시가, Lancaster-Oslo/Bergen Corpus에서는 6문장 중 4문장의 예시가 *would* + *love*구문이다.

(94) The Szolds, like the Marches, **enjoyed** and **loved living** together, even in troubled time; and, as in the March home, any young man who called on the Szolds found himself confronted with a phalanx of femininity which made it difficult to direct his attention to any particular one of them.

(Brown University Corpus G31 1540)

(95) He **loves reading** and is a bookworm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Lancaster-Oslo/Bergen Corpus F44 184)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면, 동명사 구문을 보문으로 취한 호감동사 *love*는 *like*와 마찬가지로 ‘즐거움’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love*가 *like*보다 더 강한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love + to*부정사 구문은 두 종류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자주 쓰이는 의미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은 ‘try to whenever one can’, ‘seize every opportunity to’의 의미이다.

(96) I must plead guilty to a special sympathy for nomias This may just be pride in my adopted State of Washington, but certainly I **love to visit** their mound cities near Yakima or Prosser in July or August, when the bees are in their most active period.
(Brown University Corpus J10 1560)

(97) He laughed at her crestfallen expression. ‘I **love to tease** you darling. Actually I’ll manage so much better with you along.’
(Lancaster-Oslo/Bergen Corpus P13 123)

*love + to*부정사 구문의 두 번째 의미는 ‘be fond of’, ‘rejoice of’와 바뀌 쓸 수 있고 British Corpus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98) They began to go everywhere, so that people learned to say: ‘Hello, Willie, hello Helen, nice to see you, Helen.’ He **loved to hear** them linking their names in this way. The link was a form of marriage.
(Lancaster-Oslo/Bergen Corpus N12 139)

5.3 호감동사 *like*와 *love*의 용법

호감동사 *like*와 *love*는 *-ing* 형태를 보문으로 취할 경우 의미적으로 ‘즐거움 (enjoyment)’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동사들의 직접 목적어인 *-ing*는 수동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능동과 수동으로 사용될 경우 시체가 같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수행되는 동안 *-ing* 구문의 사건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91)번의 부정문에서는, 동명사의 사건이 본동사 *dislike*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인상을 준다. 호감동사 *like*나 *love*가 동명사 구문을 보문으로 취한 예시들을 살펴보면 본동사의 주어가 보문의 사건을 현실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좋아한다’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동명사 사건에 주된 통제가 있다. 그러나 *-ing* 구문의 명사와 같은 특징과 *-ing*의 직접 목적어 역할은 Wood (1956: 12)의 예시 *I don't like sending first offenders to prison*처럼 비 주어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 구문은 *I don't like harsh treatment of first offenders* 구문과 상응하는 구문으로 *treat*라는 사건의 비 주어 통제를 보여준다.

반면에 부정사를 보문으로 취할 경우, *like*와 *love*는 부정사 사건을 현실화하는 성질의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 이 성질은 (77)-(78)에서 욕망(*desire*)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68)-(69)에서는 습관(*habit*)을, (73)-(74)에서는 열망(*inclination*), (81)-(82)에서는 성향(*tendency*), 또는 (83)-(84)에서와 같이 선호도(*preference*) 등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종종 할 수 있을 때 언제나 부정사의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습관적인 노력과 근사하다. 이는 (66)-(67) 예문에서 지배적인 성향이다.

이와 같이 욕구(*desire*)의 다양한 의미 분석처럼 *to*부정사 구문의 의미에 대한 Bladon (1968)의 분석은 결과적으로 재 정의되어야 한다. 욕구(*desire*)의 의미 분석은 ‘긍정적인 열망이나 성질(*positive inclination or disposition*)’과 같이 더 넓은 용어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To*부정사의 이렇게 다양한 성질은 *like*나 *love*의 주어에 치중되어서 주어가 부정사의 사건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전치사 *to*가 *to*부정사 사건을 향한 주어의 움직임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구문은 항상 주어 통제를 함축한다. 심지어 구두 문맥이 동명사를 보문으로 한 문장의 비 주어 해석이 가능한 Wood (1956)의 예문 *I don't like sending first offenders to prison*에서도 주어 통제요소가 포함된다. *I don't like to send first offenders to prison* 문장에서 *to*부정사는 *like*를 이용하여 수동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접목적어가 아니고 오히려 *like*의 주어가 행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는 목표지정어(*goal-specifier*)이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Corpus 예문들 중, 이 연구의 논점에 대해 문제가 되는 유일한 예시는 *like*와 함께 쓰이는 (86)과 (87)의 예시들과, *love*와 함께 쓰이는 (98)의 예시이다. 이 세 문장의 예시에서 부정사는 나중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like/love*의 주어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실은 성향(*tendency*)의 개념을 숨기는 것인지, 즉 이러한 예문들은 주어가 단지 너무 행복해서 자신들이 처할 상황을 기다려야만 하는 사건을 현실화 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 예시들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주어통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가능한 자주 이 사건을 현실화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안

의 분석은 다음 (99)의 예문에서처럼 Jespersen (1940: 259-60)이 ‘반응의 부정사(infinitive of reaction)’로 부르는 것의 예시들일지도 모른다.

(99) He smiled to see their youthful impatience.

(99)의 예문에서 *to*부정사는 ‘when he saw’와 같은 시간과 관련한 부사 상당어구처럼 기능한다. ‘when he saw’에서 의 동작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주어는 본동사 *smiled*와 *see*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수 있다. 반응의 부정사(infinitive of reaction)가 시도되고 검사된 분석은 앞으로도 여전히 연구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기로 하겠다.

5.4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호감동사 중 다음의 동사 *want, wish, desire, long, yearn, hanker, pine, hunger, thirst*는 부정사만을 보문으로 취할 수 있다.

(100) As for that other girl, let's just say I never **want to see** her again.

(Brown University corpus L01 0910)

(101) He had not been at the Sutton Coldfield meeting and he **wished to ‘put two or three things right.’**

(Lancaster-Oslo/Bergen Corpus A36 183)

(102) There will be many who **desire to seek** the Lord in prayer, and they will recognize where God is to be found in that day.

(Lancaster-Oslo/Bergen Corpus D11 103)

(103) Lorraine dear, do come down with me and tell me all your news. I'm **longing to hear** how you got on in town.

(Lancaster-Oslo/Bergen Corpus P05 84)

(104) How about the art of cooking? Do you **yearn to make** cakes and pies, or special cookies and candies?

(Brown University Corpus F06 0740)

Brown University Corpus나 Lancaster/Oslo-Bergen Corpus에서 *hanker*, *pine*, *hunger*, *thirst* 이 4문장의 동사의 예가 나와 있지 않다. 이 구문들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증된 예시들은 British National Database와 Collins Cobuild Database에서 발견되었다.

(105) He could see that, even now, she **hankered to go** back.

(British National Corpus GUX 1535)

(106) At that point, the Clinton the world **pin**es to see - leader, rather than a scambler - should, with luck, appear.

(British National Corpus CR7 155)

(107) He knew what it meant to **hunger to become** and remain number one.

(Collings Cobuild Corpus)

(108) Because Dorothy is such a charismatic figure, many people **thirst to see** her on television or read about her.

(British National Corpus AM6 138)

이러한 동사들의 행위에 대한 이유는 꽤 명백하다. 이 동사들이 ‘욕구(desire)’의 다양한 형태들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부정사의 사건이 욕망을 소유하는 주어가 성취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치사 *to*는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요구된 목적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동사들 중 많은 동사들이 직접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나 목적(goal)으로서 보문을 일으키는 다른 전치사들로 보문을 취할 수 있다.³⁾ 어떤 예문에서는 *want*와 *desire*는 직접 목적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러나 *to*부정사는 이 기능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109)에서 보듯, 대명사로 대체될 수 없고, (1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ant*가 수동태 구문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3) to wish for a baby girl, to long for a rest, to yearn for the sight of one's native land, to hanker after praise, to pine for home, to hunger for justice, to thirst for recognition.

(109) *Everyone wanted to leave, but Bill didn't want it.

(110) *To leave was wanted by everyone.

따라서 *to* + 부정사와 관련한 가장 적절한 분석은 *to* + 부정사는 *want*의 의도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라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욕망의 개념을 표현하는 다른 동사들의 행동에 의해 훨씬 더 그럴싸한 상태가 된 가설이다. 그리고 모든 동사들은 전치사의 목적 표현들이 모두 뒤따른다.

5.5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

호감동사 중 *enjoy*, *relish*, *fancy*, *appreciate*는 동명사만을 보문으로 취할 수 있다.

(111) ... this brought to the Szold house a group of bright young Jews who had come to Baltimore to study, and who **enjoyed being** fed and mothered by Mamma and entertained by Henrietta and Rachel, who played and sang for them in the upstairs sitting room on Sunday evenings.
(Brown University Corpus G31 0590)

(112) The cornering and the road-holing on the Citroen were astonishingly good (...). But best of all was the Citroen's gluttony for work. It seemed to **relish being** driven hard, and flat-out driving all day appeared to leave it refreshed and longing for more.
(Lancaster-Oslo/Bergen Corpus G24 12)

Brown University Corpus나 Lancaster-Oslo/Bergen Corpus에서 *appreciate/fancy* + 동명사의 예문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British National Corpus에서는 *appreciate* + 동명사의 예문이 13문장, *fancy* + 동명사의 예문은 24문장이 실려 있다.

(113) I know exactly how they'll react - one will be emotional, the

other will change the subject - and neither will **appreciate being** told in front of the other.

(British National Corpus CA9 419)

(114) How do you **fancy being** the Chancellor of the Exchequer's wife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British National Corpus FR1 2321)

직접 목적어로써 *-ing* 구문만을 사용한다는 보문의 제약에 대한 이유는 *to* 부정사와 상용할 수 있는 열망과 관련한 의미의 종류와 *-ing* 구문은 함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사들은 보문의 사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의 어떠한 형태도 언급하지 않는다. 시제 상으로 말하면, 이것은 *enjoy*와 *appreciate*의 경우 가장 명확하지 않다. 그 동사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을 즐기거나 평가한다. *Relish*는 생각이나 기대를 기뻐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relish*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록 사건의 생각(idea)에서의 열망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지만, 생각(idea)으로부터 이끌어낸 기쁨의 감정이지 직접적으로 사건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다. *Fancy*는 또한 상상력의 영역에 속하고 이를 종종 동사 *imagine*과 동의어로 보는 경향이 있다.

(115) And that was another thing - **fancy being** told to call her by a name which meant is French not only 'stepmother' and 'mother-in-law' but 'beautiful Mama' too!

(British National Corpus FPH 3585)

동사 *relish*와 같이, *fancy*는 생각이나 결말을 즐기게 한다. 비록 *fancy*가 (114)와 같은 사용에서는 욕망(desire)의 개념에 가깝게 쓰였으나 즐거움에 대한 내용을 상상하는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는 보문이 왜 욕망의 목적을 불러일으키는 *to* 부정사보다 상상되는 것들을 언급하는 *-ing* 직접목적어를 취하는지를 설명한다.

VI. 결론

이 논문은 호감동사(*Liking-verbs*)가 갖는 보문의 형태인 *to*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명사와 부정사에 대한 종래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통사·의미적 고찰을 하였다. 이런 기존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호감동사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찰되었다. 첫째로 *-ing*와 *to*부정사 간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정의될 수 없고, 둘째로 일반성과 특수성의 관점으로도 정의할 수 없다.

종래학자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Bladon (1968)은 호감동사의 보문 선택을 구조적 선택과 의미적 선택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동사들의 보문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구조적 선택 규칙은 불충분한 것임을 확인했고, 의미적 선택 규칙으로 인해 Bladon은 욕망의 개념과 *to*부정사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고, 추가로 동사 *want, wish, desire, long, yearn, hanker, pine, hunger, thirst* 등의 보문 선택에 기초가 됨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즐거움의 개념과 동명사 간의 관련성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Bladon의 분석은 동사 *like*와 *love*가 *to*부정사를 보문으로 취하는 구문에서 ‘*desire*’라는 의미로만 국한시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Duffley (2000) 이론에 따라서 호감동사 *like*와 *love*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like*는 *to*부정사와 동명사적 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love*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호감동사 *like*는 *to*부정사를 보문으로 취한 경우, 제 5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써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명사를 보문으로 취할 경우에는 ‘*enjoy*’와 ‘*detest*’와 같은 의미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호감동사 *love*역시 *to*부정사와 함께 쓰일 경우 ‘*try to whenever one can*’, ‘*seize every opportunity to*’ 두 종류의 의미로 구분이 되었고 동명사를 보문으로 취할 경우에는 *like*와 마찬가지로 ‘*enjoy*’의 의미를 지녔다.

결과적으로 *like*와 *love*와 같은 동사들은 ‘*enjoyment*’라는 의미와 ‘*desire/inclination*’라는 의미를 둘 다 지닐 수 있고 이 동사들이 이러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어가 *like/love*의 목적어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성향을 느끼는 생각은 이러한 개념의 기분이나 경험 측면에 초점을 둔 구문 분석을 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문법 학자들이 ‘*like doing something*’과 ‘*like to do something*’이 같은 의미라는 인상을 갖게 했다. 이 두 개념 간의 의미가 아주 유사하지만, *I don't like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과 같은 문장에서처럼 주어인 누군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I lik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의 중점은 호감동사 *like*와 *love*가 갖는 *to*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더불어 호감동사일지라도 *to*부정사만 쓰는 경우와 동명사만 쓰는 경우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문제는 같은 호감동사의 부류에 들어있지만 동사에 따라 왜 *to*부정사 형태와 동명사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는 이 논문에서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단지, *to*부정사와 동명사 형태를 나타내는 형상은 통사적인 면으로나 의미적인 측면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Andersson, E. *On Verb Complementation in Written English*. Lund: Coronet Books Inc, 1985.
- Bladon, R. A. W. Selecting the *to* or *-ing* Nominals after *like, love, hate, dislike, and prefer* in *English Studies* XLIX, 1968.
- Bolinger, D. Entailment and the Meaning of Structures in *Glossa* II, 1968.
- Chomsky, N.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and Co, 1957.
- Conrad, B. *Referring and Non-Referring Phrases: A Study of the Use of the Gerund and the Infinitive*. Copenhagen: Adademisk Forlag, 1982.
- Curme, G. O. *Syntax*. Boston: D.C. Health and Company, 1931.
- Dirven, et al. A Cognitive Perspective on Complementation in *Sentential Complementation and the Lexicon*. Dordrecht: Foris Pubns USA, 1989.
- Dixon, R. M. W. and Palmer, F. R. Complement Clause and Complementation Strategies in *Mean -ing and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 1995.
- Duffely, P.J. *The English Infinitive*. London: Longman Publishing Group, 1992.
- _____. Gerund versus Infinitive as Complement of Transitive Verbs in English in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XXVIII, 2000.
- Freed, A. F. *The Semantics of English Aspectual Complementation*. Dordrecht: Springer, 1979.
- Hornby, A. S.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Jespersen, O. *A Modern English Grammar* V.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40.
- Kempson, R. M. and Quirk, R. Controlled Activation of Latent Contrast in *Language* XLVII, 1971.
- Kilby, D. A. *Descriptive Syntax and the English Verb*. London: Croom Helm, Ltd, 1984.
- Kiparsky, D and C, Kiparsky, D. D. Steinberg, and L. A. Jacobvits. Fact in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1.
- Lehrer, M. Alinei, and N. Arhammar. Why *to* is not a verb in *Aspects of Language* II. Amsterdam: Houghton Mifflin Harcourt P, 1987.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I. Stanford: Stanford Univ, 1991.
- Larreya, P. N. Peut-on porter un regard simple sur les formes impersonnelles du verbe anglais : *to + V, V + ing, V-en* in *Sigma* XI, 1987.
- Mair, C. *Infinitival Complement Clauses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 1990.
- Murphy, R. *Grammar in Use*. Cambridge: Cambridge Univ, 1989.
- Parlmer, F. R.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Publishing Group, 1988.
- Quirk, R. et al. *A Comprehensive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Publishing Group, 1985
- Steer, J. M. & Carlisi, K. A. *The Advanced Grammar Book*. Boston: Heinle ELT, 1991.
- Stowell, T. The Tense of Infinitives in *Linguistic Inquiry* XIII, 1982.
- Sweet, H. *A New English Grammar* II. Oxford: Oxford Univ, 1903.
- Tregidgo, P. S. Some Observations on Verb + *ing* and Verb + Infinitiv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XXXV, 1980.
- Visser, F. T.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III. Leiden: E.J. Brill, 1973.
- Wierzbicka, Anna. *The Semantics of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Co, 1988.
- Wood, F. T. Gerund vs Infinitiv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XI, 1956.